

05. 동아시아사의 시대구분과 동아시아 문화권의 특징들 ②

현대 동아시아의 형성(2020s)
독습용 보조교재 & 과제

1. 고대 동아시아 문화권의 특징들 ① 율령체제와 이를 통한 중앙집권적 지배 지향

• 개괄: 「율령(체)제」란?

: 「율령」(+격식)이란 성문법으로 운영되는 국가 지배체제

: 전국시대 진(秦)에서 등장한 이래 수·당대에 완성

: 강력한 권력을 군주에게 일원화시키고, 군주의 명령을 세분화된 전담부서의 관료들이 실행. 군주보다는 동족집단을 우선시하기 쉬운 귀족집단의 권력을 약화시켜 군주권을 안정시키고, 동시에 민(民)을 귀족 등 중간지배자에게서 떼 내어 군주의 지배하에 직결시킴으로써 군주권의 재정기반을 강화시키는 것이 이상이었음

: 강력한 군주권을 합리화하기 위해 유학의 사상적 지원을 필요로 했으며, 동시에 율령의 엄격한 적용을 위해 법가의 경험도 필요로 했음 (so 유가+법가라는 사상적 기반)

: 또한 이는 「읍제국가 연합」 단계를 넘어서 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해진 영토를 지배하게 된 「고대 왕국」 레벨의 국가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도 했음

1. 고대 동아시아 문화권의 특징들 ① 율령체제와 이를 통한 중앙집권적 지배 지향

- 개괄: 「율령(체)제」란? (계속)

→ 즉 국가규모가 군주의 개인적인 판단력으로 운영하기에는 너무 확대되었기에 일종의 성문법 체계가 필요해진 결과임

- 「율령격식」이란?

: 「율」(律)···현재의 형법. 율령격식 중 가장 먼저 발달

: 「영」(令)···국가운영 전반에 관한 법규. 한(漢)대에 발달

→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규정, 관료의 선발과 평가, 토지·조세·부역제도, 신분제도, 각종 관공문서의 형식 및 국가의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됨

: 「격」(格)···기존 율령의 보완/변경(황제의 명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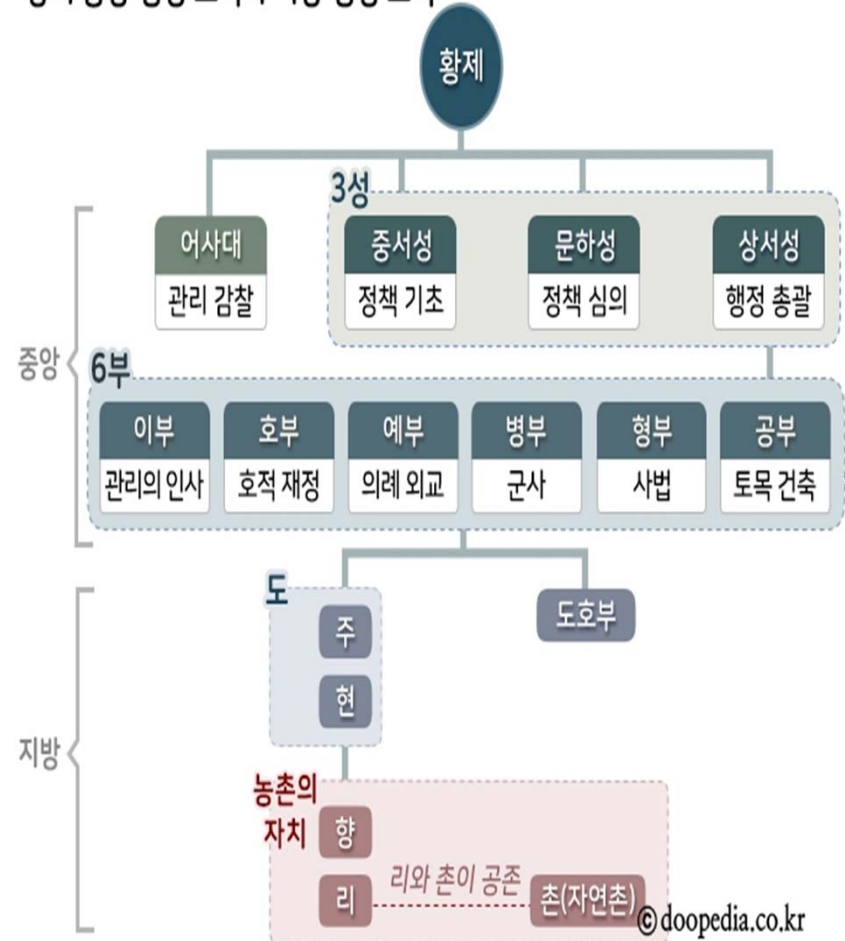
: 「식」(式)···율령의 시행세칙

1. 고대 동아시아 문화권의 특징들 ①울령체제와 이를 통한 중앙집권적 지배 지향

- 울령체제의 구체상 ①중앙/지방관제
 - : 중앙관제는 「3성(省)6부(部)제」
 - : 3성은 황제의 명에 따라 법령과 국가정책을 기안 · 심의 · 실시함
 - : 6부는 심의를 통과한 정책을 전담분야별로 실행 (이호예병형공)
 - : 지방행정제도는 주(州) · 현(縣)이 기본으로, 그 위에 광역단위인 도(道)가 나중에 설치됨. 한편 특수지역에 부(府)도 설치

- 울령체제의 구체상 ②관료
 - : 행정문서의 양이 폭증함에 따라 문서작성 능력을 갖춘 관료가 대량 필요
 - : 과거제+음서+내부승진으로 충원
 - : 과거시험의 과목은 진사과(시문), 명경과(유교경전)가 대표적. 그 준비를 위해 국립 교육기관을 운영

당의 중앙 행정 조직과 지방 행정 조직



1. 고대 동아시아 문화권의 특징들 ① 율령체제와 이를 통한 중앙집권적 지배 지향

• 율령체제의 구체상 ③ 신분제도 (=양천제)

: 양민(良民)···특권층인 관인(官人)과 일반 서민으로 구분되며, 각종 조세&부역의 대상. 대다수

: 천민(賤民)···노비 및 천시 업종 종사자로 관직에 나갈 수 없고 양민과의 통혼(通婚)도 불가했음. 소수

• 율령체제의 구체상 ④ 토지제도

: 원칙적으로 모든 토지(농지)의 소유권은 군주에게 있음. 경작권과 이로부터 얻어지는 수입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두 범주로 나뉨

: 1) 경작권을 영구세습할 수 있는 토지 2) 일정 연령에 달한 이들에게 급여했다가 사망 시 환수하는 토지

: 2)를 대표하는 것이 「구분전」(口分田)이며, 그 운영을 규정한 것이 당(唐) 전기를 대표하는 토지제도인 「균전제」(均田制)

1. 고대 동아시아 문화권의 특징들 ① 율령체제와 이를 통한 중앙집권적 지배 지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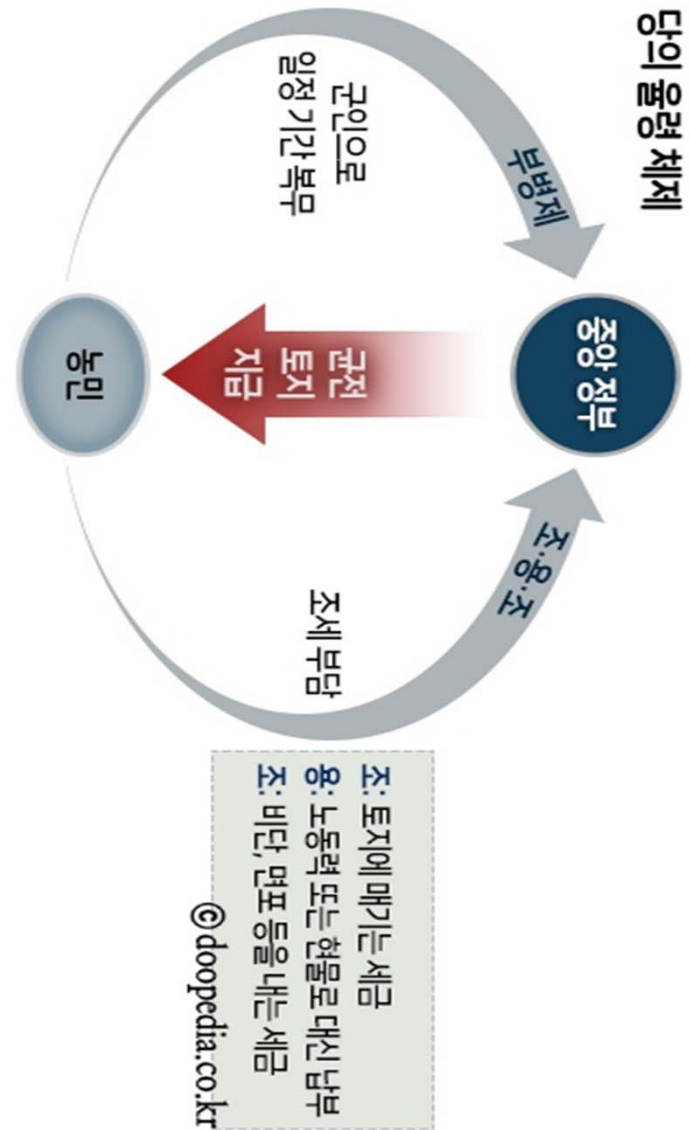
• 율령체제의 구체상 ⑤조세제도

**: 율령제 국가는 이처럼 민에게 토지
를 급여하는 대신, 현재의 용어로 말
하자면 세금을 요구함**

: 그 대표적 세금이 「조·용·조」(租庸調)로, 원칙적으로는 성인남성에
게 부과됨. 그밖에 현재의 지방세에
해당하는 「잡요」(雜徭)가 존재

: 이들 세금은 토지세인 조(租)를 제외하면 인두세였기 때문에, 전술한 토지제도, 그리고 병역제도까지 포함하여 민에 대한 개인정보를 국가가 파악하여 문서로 기록할 필요가 발생

→ 주기적으로 국가가 「호적」(戶籍)작성. 이는 막대한 국가의 행정력을 필요함



1. 고대 동아시아 문화권의 특징들 ①울령체제와 이를 통한 중앙집권적 지배 지향

• 울령체제의 구체상 ⑥병역제도 (=부병제)

: 당의 부병제(府兵制)는 병농일치에 입각한 징병제(⇔모병제)

: 농번기에는 생업종사, 농한기에 훈련. 수도 및 주요 도성과 국경지대에서 교대로 근무

: 문제는 병역이행에 필요한 모든 부담(식비&무기구입비 포함)을 민이 부담해야 했다는 점. 그 결과 부병제를 운영하는 측인 국가의 재정부담은 극히 적었지만, 반대로 민의 부담은 상당히 컸음

→고대 울령제 국가의 주된 붕괴원인 중 하나

→민의 거주지 이동을 제한할 필요가 발생

1. 고대 동아시아 문화권의 특징들 ① 율령체제와 이를 통한 중앙집권적 지배 지향

• 한반도 및 일본열도의 율령체제 수용

: 당 왕조의 국제적, 개방적인 문화 덕분에 중국고대의 율령제는 주변의 국가/정권들로 파급. 육지로 연결된 한반도 삼국은 물론, 험난한 바닷길을 감수해야 했던 일본까지도 「견당사」(遣唐使)란 대규모 사절단을 주기적으로 파견, 중국문화의 수용에 힘씀

: 현재 동아시아 각국의 정치제도, 외교관례가 19C 서구열강과의 압도적인 국력 차이라는 배경 하에서, 자국의 생존을 위해 서구식을 채용해야 했던 것과 같은 이유로, 당시 중국주변의 국가/정권들은 중국의 율령제를 수용했을 것

: 물론 선진문화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 호기심이란 이유도 있었을 것이며, 중국식 율령제를 주변 국가/정권들이 있는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자국의 실정에 맞게 개량하여 도입한 점을 감안하면, 수용자 측의 주체성도 중시되어야 할 것

1. 고대 동아시아 문화권의 특징들 ① 율령체제와 이를 통한 중앙집권적 지배 지향

• 한반도 및 일본열도의 율령체제 수용 (계속)

: 한반도에서는 먼저 백제가 3C 고이왕 때 율령을 반포했다 하며, 뒤이어 고구려가 4C 중엽, 그리고 신라가 6C초에 율령을 반포하여 국가제도를 정비했다 함. 그 구체적 내용은 전하지 않지만, 역사가들은 삼국의 율령반포 시점을 전후하여 삼국이 기존의 읍제국가 연합 단계를 벗어나 고대왕국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본다. 통일신라와 발해에 이르면 율령제에 대한 이해는 더욱 심화되고, 그만큼 중국 모델로부터의 독자성도 늘어난다.

: 한편 일본은 7C에 들어와 읍제국가 연합 단계를 벗어나 중앙집권적 정치체제 수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데, 중국 및 한반도로부터의 왕성한 문물수용(율령제 포함)은 그 중요한 지표이다. 그 결과 7C말~8C초에 이르면 고대왕국 단계에 진입하여 천황의 권력이 기록상으로는 이전에 비해 획기적으로 강화된다. 한반도의 경우와는 달리, 일본은 당시의 율령 일부가 현존하는 덕분에, 이를 통해 역으로 중국과 한반도 율령의 실상을 유추하기도 한다.

1. 고대 동아시아 문화권의 특징들 ②유교와 불교

• 유교의 국가이념화

: 가부장을 중심으로 한 가족내의 질서를 지역사회, 국가로 확장시켜 적용. 따라서 가족질서가 변동될 수 없는 것처럼 지역 및 국가도 그래야 한다는 시각이 강함(so 체제안정/합리화에 강점)→이 점이 중국 주변국들의 지배자들에게도 어필

: 다만 그럼에도 현실에서 발생하는 왕조교체를 설명하기 위한 논리로서 「선양」(禪讓) 및 「역성혁명」(易姓革命)을 마련

: 그리고 유교적 가르침의 결과로 강화될 수 밖에 없는 군주권(의 폭주)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서 「왕도정치」(王道政治)를 주장함(⇔패도정치霸道政治)

: 중국 한대에 이르러 국가이념으로 채택되었고, 이를 위해 국립교육기관을 설치하여 졸업생 중 일부를 관료로 채용(유학자의 제도적 양성). 수·당대에 이르러 유교적 지식소양을 묻는 과거제가 완성되고, 이것이 관료충원의 주된 방법으로 확립되면서 유교와 율령제 국가의 결합이 완성

1. 고대 동아시아 문화권의 특징들 ②유교와 불교

• 유교의 국가이념화 (계속)

: 당 왕조까지의 유교와 관련된 지식은 동아시아의 주변국들이 율령제를 채용하면서 이와 함께 유입됨. 그 결과 한반도 삼국과 일본에서 유학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인재를 양성, 일부를 관료로 충원하기도 함

: 하지만 과거제와 연동된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유학교육, 그리고 이에 입각한 국가통치가 실현되는 것은, 한반도에서는 성리학이 유입되는 고려 왕조를 거쳐 조선 왕조에 들어와서의 일

: 반면 일본의 경우, 유학교육의 필요성은 중국적 중앙집권국가가 붕괴하는 고대 후기(=헤이안平安시대) 이래 퇴조하였으며, 17C 초 비교적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했던 에도 막부가 성립되면서 체제안정의 차원에서 다시 주목 받기 시작함. 하지만 유교의 일부 요소(가령 역성혁명, 과거제 등)는 당시의 일본적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였기에, 중국·한반도에 비해 유교의 정치적 기여는 극히 제한적이었음

1. 고대 동아시아 문화권의 특징들 ②유교와 불교

• 불교의 유입과 국가불교

: 중국의 경우, 불교의 전래는 비단길을 통한 서역과의 교류의 산물로, 후한대의 일. 그러나 그것이 본격적으로 주목 받기 시작한 것은 혼란기인 위진남북조 시대

: 체제안정을 중시하는 유교의 영향력이 체제혼란 속에서 약화되면서, 그 대신 불교/도교의 관심도 ↑. 특히 북조의 왕들은 「황제=부처」라는 논리로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하는데 불교를 이용

: 유교에 비해 잘 짜여진 내세관을 지닌 점도 정치적 혼란기를 살아가던 당시의 중국인들에게 매력적이었을 것

: 다만 이처럼 전래 직후의 불교는 현재와는 달리 민중에 대한 포교나 구원에는 별 관심X. 어디까지나 위정자와 국가의 무사, 안녕에 관심이 집중(=국가불교). 이는 한반도와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였으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는 것은 보다 시간이 흐른 뒤의 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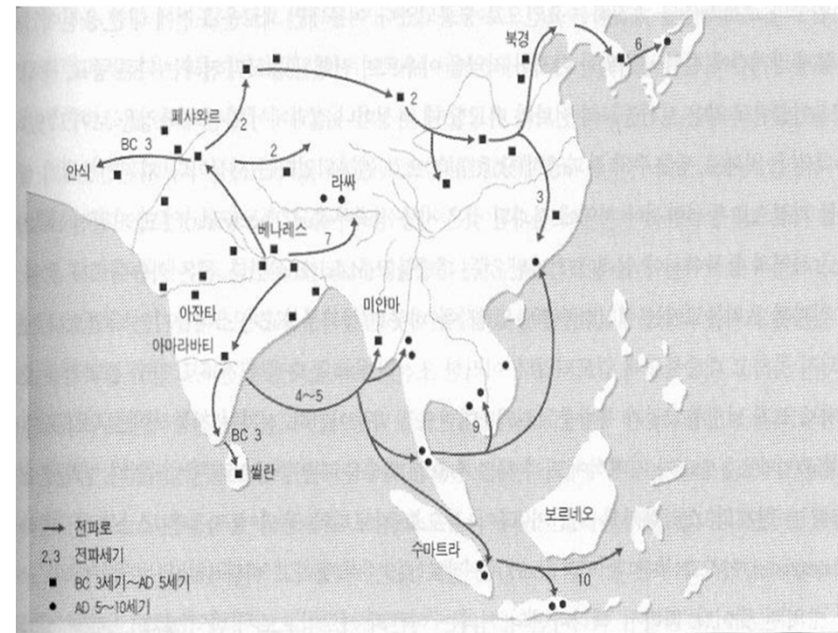
1. 고대 동아시아 문화권의 특징들 ②유교와 불교

(밑) 평양 정백동 364호 고분(낙랑유적)에서 1990년 출토된 『論語』先進篇(죽간형태)

→한대의 유학이 서적(죽간)을 통해 그 주변으로 전파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



불교의 전파도



1. 고대 동아시아 문화권의 특징들 ③한자

• 상세는 생략

: 다만, 중국 주변국들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식 율령체계의 수용/운영을 위해서는 당연히 관료제의 정비가 필요했을 것이고, 이는 문서에 기반한 행정업무량을 급증시켰을 것

→따라서 중국 공문서의 기본언어인 한자(한문)에 대한 지식이 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문물의 수입, 그 자체를 위해서도 한자(한문)에 대한 지식습득이 필요

: 또한 당대에 형성되는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하는 국가들 사이의 기본적 외교언어도 한자(한문)

→국가의 존망이 걸린 외교행위(or 전쟁)를 위해서도 필요

*오늘날 非영어권 국가의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는 것과 유사

1. 고대 동아시아 문화권의 특징들 ④ 중국식 세계인식(=조공/책봉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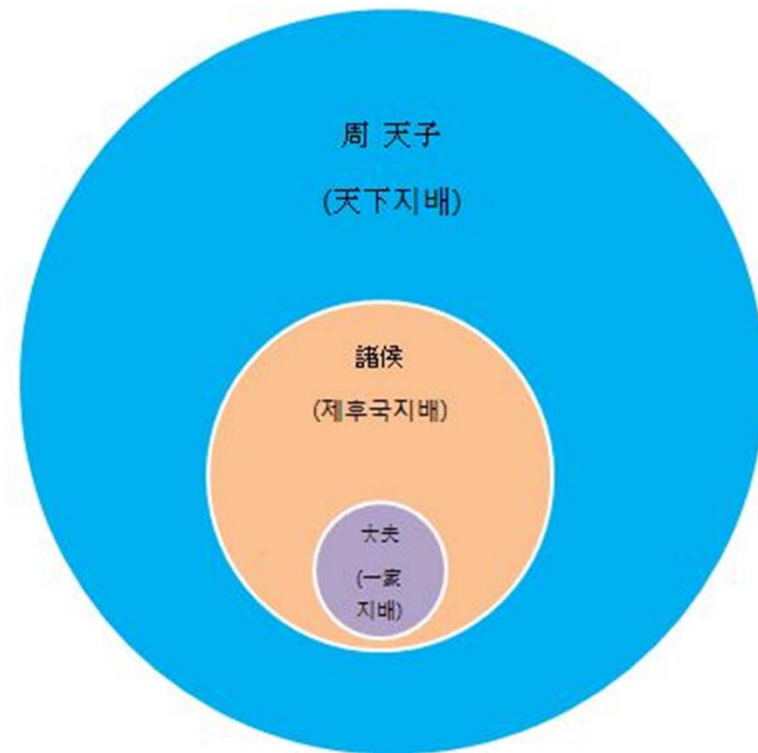
· 고대 중국인들의 세계인식

: 상 왕조에서 춘추전국시대에 걸쳐 그 원형이 형성. 이 시기의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문화가 미치는 범위를 「중화」(中華)라 칭했고, 그 범위 바깥에 존재하는 이들을 「이」(夷)라 인식(=화이관華夷觀). 따라서 세계의 구분기준은 혈통/민족보다는 문화

: 이런 인식은 진·한대를 거치며 보다 정교해짐. 천명(天命)을 받은 천자(=황제)의 덕(德)은 전세계로 동심원적으로 확장되며, 그 영향력은 천자와의 거리가 멀어질 수록 약화됨(반대로 가까울수록 강함). 그 영향력의 강약(=천자와의 거리의 멀고 가까움)에 따라 문화적 우열관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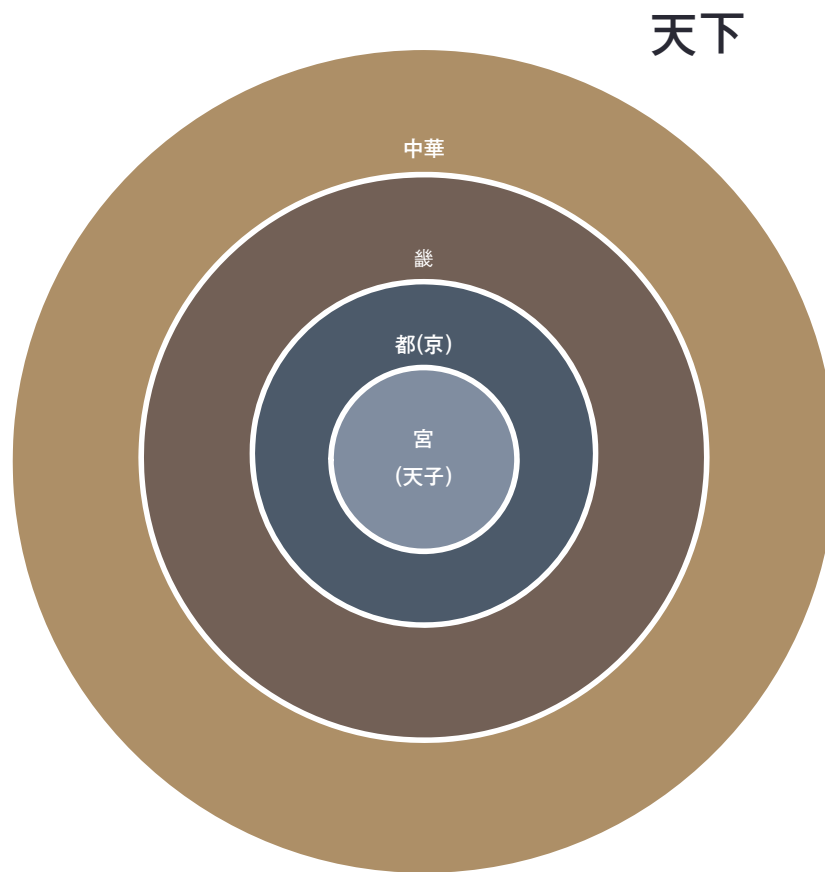
: 이러한 세계인식을 국제관계로서 제도화한 것이 이른바 「조공·책봉체제」인데, 이는 한대에 등장하여 수·당대에 일단 완성을 봄.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수정/개량되다가 19C 서구열강의 외교질서가 강제되면서 소멸.

주대 봉건제의 천하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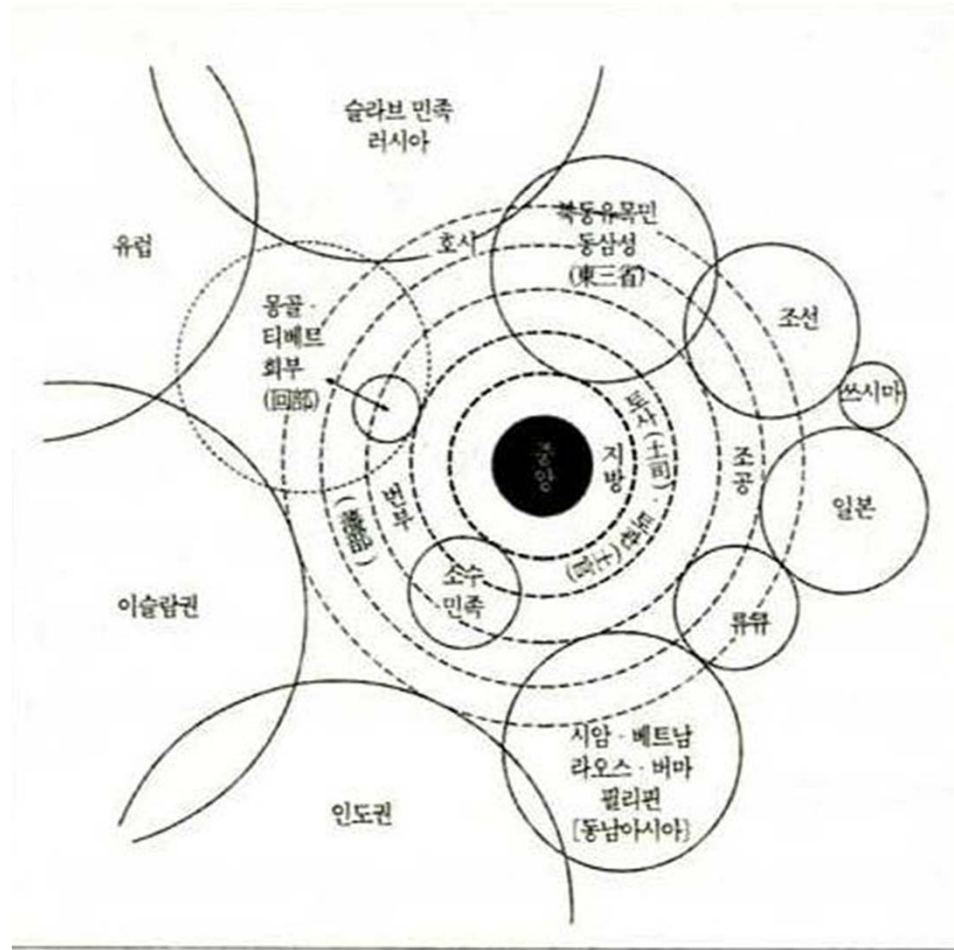
1. 고대 동아시아 문화권의 특징들 ④중국식 세계인식(=조공/책봉체제)

천자를 중심으로 본 동심원적 세계질서



: 세계의 중심에는 덕(德)의 체현자인 천자가 위치. 「궁」(宮)은 천자가 거주하는 건물 정도의 의미이며, 「경」(京)은 수도의 의미(「도」(都)는 당 왕조의 장안처럼 바둑판식 도시구획이 이루어진 수도란 의미). 그리고 경의 외부에는 오늘날의 수도권에 해당하는 「기」(畿)가 위치. 그리고 그 외부에 천자의 덕이 직접 닿는 최대의 범위인 「중화」가 위치함. 「천하」는 중화를 포함하는 인식가능한 세계 전체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중화 이외에도 다양한 이민족 국가/정권이 존재. 이들 이민족 국가/정권은 중국 천자가 제시하는 조공/책봉 질서(후술)를 어디까지 수용하는가에 따라 중국적 세계질서에서의 위치고하가 결정됨. (현실적인 힘의 강약과는 직접 관계X)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 주변 국가/정권에 대한 중국 측의 분류법은 점점 더 복잡/세밀해짐. (=세계인식의 확대, 보다 많은 이민족과의 접촉의 결과)

1. 고대 동아시아 문화권의 특징들 ④중국식 세계인식(=조공/책봉체제)



조공 시스템(하미시타 다케시의 저서에 따름)

청대(清代) 조공/책봉체제의 실태

: 앞 슬라이드의 중국적 세계질서가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도판. 청대는 가장 복잡한 조공/책봉체제를 운영한 시대로, 주변국(정권)이 중국의 외교에 법을 수용하는 정도에 따라 다양한 범주에 각기 편입되었다. (토사, 번부, 조공국, 호시 등)

1. 고대 동아시아 문화권의 특징들 ④중국식 세계인식(=조공/책봉체제)

• 조공/책봉체제란?

: 「책봉」(冊封)···「책」은 문서를 의미하며, 「봉」은 토지를 구획한다는 의미. 따라서 「책봉」은 토지를 구획하여, 그 토지의 권한을 문서로 보증한다는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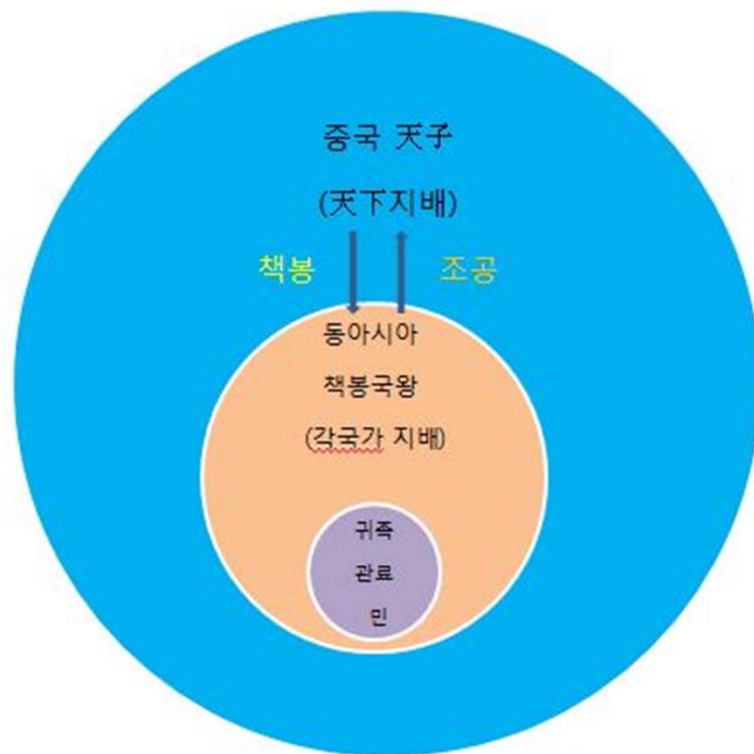
: 「조공」(朝貢)···「조」는 천자의 조회에 참석한다는 의미이며, 「공」은 공물을 바친다는 뜻. 따라서 「조공」은 천자의 조회에 참석하여 공물을 바친다는 의미

: 중국의 천자는 천명에 의해 「천하」(=인식가능한 전 세계)를 지배할 의무이자 동시에 권리를 받는데, 천하의 가부장인 천자(황제)는 다시 그 주변국/정권의 지배자들을 「책봉」함으로써 그들의 지배권을 승인한다. 결국 중국의 주변국/정권의 지배자들은 중국 천자의 승인 하에 자신들의 지배지역을 비로소 지배할 수 있다는 논리

→주대 봉건제의 천자-제후 관계를 천하에 확대적용한 것

1. 고대 동아시아 문화권의 특징들 ④중국식 세계인식(=조공/책봉체제)

조공책봉체제 하의 천하의 구조



• 중국 천자의 의무 (조공/책봉체제 하에서의)
: 천(天)을 대신하여 천하의 주인으로 군림하는 대신, 천하의 질서를 유지할 의무/권리를 가짐. 따라서 천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를 응징해야 함과 동시에 「덕치」(德治)를 통해 끊임 없이 자신이 천명을 이행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함

• 조공국 군주의 의무 (조공/책봉체제 하에서의)
: 조공 시에 중국 천자가 부과한 외교의례를 수행하고, 자국 내에서는 중국의 역법(曆法)을 시행하고 중국식 연호를 사용해야 함.

1. 고대 동아시아 문화권의 특징들 ④중국식 세계인식(=조공/책봉체제)

• 조공/책봉체제가 동아시아에서 장기존속한 이유

: 먼저 정치적 이유를 보자. 종주국인 중국은 조공국들의 존재는 중국황제의 「덕치」의 결과라고 대내외적으로 선전할 수 있었고, 군사적 유사시에는 조공국을 방패로 삼아 시간을 벌 수도 있었음. 반면 조공국의 군주는 전술한 외교의례를 준수하기만 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 최대의 군사적 위협이 될) 중국으로부터 자국의 내정과 외교상의 자주적 운영권을 보장 받을 수 있었고, 군사적 유사시에는 가령 임진왜란 때처럼 중국의 군사적 도움이나 외교적 중재를 기대할 수도 있었음

: 또한 경제/문화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음. 1)책봉/조공을 통해 선진국 중국과 항시적인 문화교류가 가능해짐 2)조공국이 바치는 조공물의 양보다 중국황제가 답례로 주는 희사품이 더욱 막대했음 (=무역흑자) 3)중국의 학문, 서적들의 유포를 통해 중국은 자신들의 정치이념을 선전할 수 있고, 조공국은 선진문물을 수입할 수 있었음 (뒤 슬라이드)

1. 고대 동아시아 문화권의 특징들 ④ 중국식 세계인식(=조공/책봉체제)

- 조공/책봉체제가 동아시아에서 장기존속한 이유 (계속)
 - : 4) 중국은 그 존재자체가 문화창조의 장이며, 동서간 문화교류의 창구 역할을 수행. 여기에 참여 가능
- 조공/책봉체제의 문제점들
 - : 중국의 조공/책봉관계가 이상과 같은 장점들만 가진 것은 아니며 문제점들도 동시에 존재
 - 1) 사실 중국 천자가 천명을 받고 이에 부합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방도는 없음 (조공국은 사실 자신의 이해타산의 결과로 움직이고 있을 뿐)
 - 2) 중국이 현실적으로 항상 천하의 중심일 수는 없음 (강력한 힘을 지닌 국가(정권)가 존재함이 발견되었는데, 그 국가가 조공/책봉체제 편입을 거부하거나 관심이 없다면, 이를 천자는 어떻게 합리화해야 하나?)

1. 고대 동아시아 문화권의 특징들 ④ 중국식 세계인식(=조공/책봉체제)

• 조공/책봉체제의 문제점들 (계속)

3) 역성혁명은 중국 천자의 도덕에 입각한 정치(왕도정치)의 시행 유무로 설명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전쟁 등 국력약화의 결과라는 모순을 어떻게 하나? (다음 강의범위에 속하나, 가령 북송·남송대에 중국천자가 요(遼)·금(金)같은 이민족 군주에게 오히려 조공해야 했던 현실을 어떻게 설명하나? 나아가 원(元)·청(淸)같은 이민족 정복왕조의 등장을 어떻게 합리화하나?)

4) 오늘날의 국가들처럼 명확한 국경개념을 상정하고 있지 않으므로(동심원적 세계관), 누구나 납득하는 명백한 자연적 경계가 있지 않은 한, 변경지역에서는 종종 전쟁·분쟁이 벌어짐

1. 고대 동아시아 문화권의 특징들 ④ 중국식 세계인식(=조공/책봉체제)

• 조공/책봉체제의 문제점들 (계속)

5) 오늘날의 국제질서처럼 모든 국가들이 외교상 평등하다는 관념은 없으므로(세계의 중심 중국은 모든 국가에 대해 우위. 즉 국제관계=우열/상하관계), 이런 외교관념을 수용한 주변국들도 중국을 제외한 타국을 자국보다 하위의 존재로 간주함(가령, 소중화사상). 문제는 중국이 아닌 국가들 사이에서 이런 우열관념이 상호 충돌하여 상호 멸시나 극단적인 경우 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가령 신라vs고대일본, 조선vs에도막부 사이의 상호멸시는 대표적)

• 조공/책봉체제의 의의

: 그러나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의 국제질서, 조공/책봉체제는 동아시아 각국이 19C 서구열강과 조우할 때까지 장기간 지속되었는데, 바로 이 점이 조공/책봉체제의 최대의 의의일 것임 (뒤 슬라이드)

1. 고대 동아시아 문화권의 특징들 ④중국식 세계인식(=조공/책봉체제)

• 조공/책봉체제의 의의 (계속)

: 동일체제의 장기지속으로 인하여, 중국과 그 인접국들은 비교적 안정된 국제질서 속에서 장기간 존속할 수 있었으며, 여기에는 동아시아 문화권이 가진 또 하나의 특징, 즉 유교가 지닌 중앙집권적 지배체제 지향으로 인해 이를 수용한 동아시아 각국 내부의 지배도 비교적 안정적이었다는 점도 작용했을 것임

: 그 결과, 동아시아 문화권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경제, 문화 공동체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음

2. 과제

Q. 현재에도 한중일 삼국에 남아있는 「고대 동아시아 문화권」의 흔적들을 찾아 열거하시오.

: 불교나 유교같은 종교/사상, 그리고 한자(한문)은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이 자명한 흔적임에 반론을 제기할 이는 없을 것이다(따라서 답변에서도 제외할 것). 그러나 본 강의에서 언급한 나머지 특징들, 즉 율령체제나 조공/책봉체제의 흔적들도 사실 현재를 살아가는 나나 여러분들 주위에 아직 많이 남아 있다. 힌트를 제공하자면, 특히 율령체제나 조공/책봉체제 하에서 사용된 특수한 용어들이 현재에도 많이 남아 있는데, 가령 국가기관의 조직/관직명이나 지방행정구획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사례를 찾아서 열거하고, 가능하다면 왜 현재에도 동아시아 고대라는 아득한 과거의 유산을 차용하고 있는지 이유를 추측해 볼 것. 한국의 경우는 각자 자신의 역사상식을 활용하기 바라고, 중국의 경우는 기존의 text, 그리고 혹시 일본의 사례를 조사하고 싶은 경우는, 별도로 배부하는 율령제 확립기의 일본사에 대한 text를 참조하기 바란다.